“아는 만큼 보여요”

송광사 ‘성보 바로 알기 템플스테이’

“돌 하나 까지도 성스러운 보물”
얽힌 일화·유물 가치 친절한 설명
교육·수행 일거양득, 정례화 예정

2002년 처음 시작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더욱 전문·세분화되어가는 가운데, 2월 10~11일 순천 송광사에서는 ‘성보 바로알기’를 주제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그간 사찰이 템플스테이의 ‘무대’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엿한 ‘주인공’의 자리를 얻은 것이다.

템플스테이 둘째 날인 2월 11일. 참가자들이 따뜻한 떡국으로 빈속을 채우고 일주문 앞에 모였다. 어제 입제식 후 가진 스님과의 대화 시간에 송광사가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16국사를 배출한 ‘승보(僧寶) 사찰’이라는 것도 알았고, 선원과 강원·율원을 갖춘 총림(叢林)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이제 사찰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송광사의 매력에 빠져볼 차례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는 다리인 능허교에 이르자 안내를 맡은 일웅 스님이 다리 밑을 가리킨다.

“저기 다리 밑에 엽전 세 닢이 걸린 것이 보이시죠? 능허교와 우화각을 지을 때 보시 받은 돈이 남아 저곳에 걸어 놓은 것입니다. 시줏돈을 허투로 쓰지 말라는 말 없는 가르침이지요.”

우화각에 걸린 편액과 현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웅보전 앞에 다다랐다. 또 다시 스님의 질문이 이어진다. “다른 절과 달리 송광사에 없는 것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탑과 풍경이다.

“송광사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의 형상이라 석조로 만든 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풍경을 달지 않은 것은 승보사찰로서 스님들이 수행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 끄떡. 1902년 고종황제의 왕실기도처로 건립된 관음전에서는 처마 밑에 숨은 그림처럼 써 넣은 ‘수(水)’자와 ‘해(海)’자를 찾아보며 ‘화기(火氣)’를 다스리려 했던 선조들의 노력도 느껴본다.

대웅보전을 참배한 뒤 참가자들은 성보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까지 사찰 외관과 건물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송광사에 전해지는 문화재들을 알아볼 차례. 12년째 송광사 성보박물관을 맡고 있는 관장 고경 스님이 직접 ‘문화유산해설사’로 나섰다.

“1997년 개관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는 국보 3점과 보물 110점, 지역문화재 38점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불상이나 탑 같이 화려한 문화재보다는 문서나 탱화 등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유물들은 지난 800여 년 동안 숱한 화재나 전란에도 불구하고 보존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는 한두 사람의 성의나 역사적인 우연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전하는 성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면면히 이어져온 덕분이지요.”

고경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송광사 스님들은 성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어놓아 전란을 피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잠시 혼란했던 틈에 불쏘시개로 쓰이던 편액이나 책상 덮개로 쓰이던 목판 등을 찾아내 무사히 전해지게 한 일화도 소개했다.

박물관에는 고려 고종이 진각국사에게 ‘대선사’호를 내려준 문서인 ‘고려고종제서’나 <거란본대장경>을 강화 선운사에서 송광사로 이운할 때 옮겨온 대장경 분류표지 패인 ‘경패’,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릴 때 사용하던 용기인 ‘능견난사’ 등 국보와 보물들이 가득하다.

차근차근 설명을 듣지 않으면 문화재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도장 하나 문서 하나에 얽힌 일화와 역사를 옛날이야기처럼 차근차근 들려주는 고경 스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미 참가자들은 수백 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있다. 보조국사 스님이 신었던 신발과, 대중들을 위해 밥을 저장했던 목조용기인 ‘비사리 구시’ 앞에 서자 참가자들의 상상력이 더욱 커진다.

“신발 크기로 보건데, 보조국사 스님은 키가 150cm 정도 밖에 안 됐을 것 같아.”

“이 통에 쌀 일곱 가마로 지은 밥이 들어간데.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옛 유물을 통해 수백 년 전 송광사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참가자들. 이제 그들에게 성보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나 국보·보물 등으로 이름 지어진 좁은 의미의 ‘문화재’가 아니다. 송광사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 무심히 놓인 돌멩이 하나까지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 땅에 이어지게 하고자 한 노력이 담긴 ‘성스러운 보물’로 다가온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이경희(25)씨는 “평소 절에 가면 눈으로만 스윽 훑어보고 나오기만 해 아쉬웠는데, 경내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설명을 듣고 나니 성보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참가했다는 권수자타(20) 한수진(20)양은 “설명을 들을수록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뜻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연아(30)씨 또한 “그저 ‘문화재’라고만 여겼던 사찰의 여러 유물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 전하는 ‘성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한다.

송광사 김승년 포교과장은 “성보에 관해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성보 바로알기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성보 바로알기 템플스테이’는 2월 24~25일에도 진행된다.(061)755-0107

순천 송광사/글=여수령·사진=박재완 기자

사찰 안내를 맡은 일웅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일주문을 살펴보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난다. 오른쪽 맨 위 사진은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이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 얽힌 일화를 하나한 친절히 소개해주는 모습.

금강약돌 심폐 온열조끼

★2007년 설날★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을 선물하세요!

심·폐, 오십견, 임파선에 온열 침과 뜸을 동시에…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금강약돌에서는 공기속의 비타민 음이온이 1cc당 1200개까지 발산되며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성이 강한 황토, 바이오 세라믹을 이온 결합한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자기발열을 일으키며 온열, 숙성, 자정등 여러 작용으로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원활, 노폐물과 유해금속을 배출합니다.

장부의 혈맥에 온열 자극으로 만성적 긴장감에서 오는 피로를 해소, 어깨결림으로 고생하는 오십견 등 질병예방에 효과적!!

- 좌·우측 어깨를 열침효과로 오십견을 해소하며, 겨드랑이에 모인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배출하고 임파선을 치유
- 목의 전·후 갑상선을 보호하면서 치유
- 혈맥을 자극하여 뇌의 혈액순환과 심·폐의 혈을 안정적으로 유지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기모혈(氣募穴)과 기유혈(氣兪穴)을 금강약돌의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각각의 장부(臟腑)를 활성화 시켜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순환시켜 겨드랑이로 모여드는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빠르게 배출하면서 질병의 요인을 치유합니다.

허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침과 뜸의 효과로 동시에 혈자리를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심폐, 오십견, 임파선, 겨드랑이에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목의 전후 갑상선과 뇌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혈을 자극하여 허약한 부분(기능저하)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하여 인체의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판매원 : 금강닥터사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